

# 활동공중 이해를 위한 촛불집회의 문화적 의미 고찰

## Understanding Activism: The Cultural Meaning of the Candlelight Vigil

김자림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Jarim Kim(jrkim@kookmin.ac.kr)

### 요약

촛불집회는 한국 사회에서 국민들의 뜻을 비폭력적으로 전하는 상징으로 자리잡아왔다. 촛불집회는 문화적 행사라는 명목으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시작되었다. 이렇듯 명목상 문화제로 시작되었던 촛불집회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어떠한 문화적 의미를 지니는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집회에 어떠한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는지 탐색해보고, 이를 통해 활동공중에 대한 이론적 틀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2008년과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총 47명의 촛불집회 참가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분석 결과, 촛불집회는 축제, 해학,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활동공중의 이론적 접근에 대한 논의 및 향후 연구 제언이 이루어진다.

■ 중심어 : | 촛불집회 | 문화적 의미 | 축제 | 해학 | 표현 | 카니발 | 질적 연구 |

### Abstract

The candlelight vigil is a nonviolent collective action by Koreans to communicate with the government. Although they have political goals, candlelight vigils are represented as cultural events. However, despite its importance in Korean society, it is unclear how Koreans perceive the cultural meaning of the candlelight vigil. This study, therefore, investigates the cultural meaning of the candlelight vigil, ultimately aiming to extending the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ctive publics.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47 in-depth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of 2008 and 2016 candlelight vigils.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candlelight vigil has cultural meanings of festivity, humor, and self-expression.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 keyword : | Candlelight Vigil | Cultural Meaning | Festivity | Humor | Expression | Carnavalesque | Qualitative Research |

## I. 서론

2002년 주한미군의 장갑차량에 깔려 사망한 신효순,

심미선 학생에 대한 추모를 위해 시작된 촛불집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로 정착하였다. 촛불집회는 전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반

\* 본 연구는 2017년도 한국PR학회 연구 과제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접수일자 : 2019년 01월 23일

수정일자 : 2019년 02월 25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3월 09일

교신저자 : 김자림, e-mail : jrkim@kookmin.ac.kr

대 시위,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 등 굵직굵직한 사회적 이슈 때마다 그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촛불집회는 이전의 시위와 달리 비폭력 시위이며, 집회를 주도하는 세력이 없는 점, 즉, 학생, 주부(소위 유모차부대), 일반 직장인 등 다양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형태로 주목받은 바 있다[1]. 특히, 2008년과 2016년의 촛불시위는 1970-80년대의 시위와 마찬가지로 반정부적인 성격을 띠었으나 그 현상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08년 촛불집회는 2008년 4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의 위험이 있는 쇠고기 부위의 수입을 허용하는 한미 쇠고기 협상안을 발표하며 시작되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다룬 MBC PD수첩을 계기로 전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켰고, 총 350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집회가 3개월에 걸쳐 지속되었다[2][3].

2016년 촛불집회는 최순실의 이권 및 특혜 지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위한 강제 모금 등과 관련된 대통령직 권한남용, 그리고 국가 기밀 자료 유출 등의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시작되었다. 이는 2016년 10월 29일 첫 집회를 시작으로 2017년 3월 11일까지 대략 1,600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결과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내었다[4].

이러한 촛불집회는 초기에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문화제의 성격으로 진행되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등이 금지되지만, 문화행사 등은 예외이다[1]. 하지만 이러한 상황적인 요인으로 문화제 성격을 띤 채 시작된 촛불집회가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해석되는지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 사람들은 촛불집회에 어떠한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들은 촛불집회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의문에 답을 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촛불 시위라는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하고, 현재 어떠한 내용의 의미들이 형성·공유·발전되어 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새로운 민주주의라

고 일컬어지는 현재 촛불집회가 기존 집회와 어떠한 차별점을 지니는지 이해하기 위해, 촛불집회가 지니는 문화적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활동공중(active public), 더 나아가 액티비즘(activism)은 위와 같은 집단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기존 연구들은 개개인들이 어떻게 혹은 왜 모여 활동공중이 되며, 활동공중으로 행동하는지 연구해왔다[5].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조직 중심(organization-centered)의 접근법을 취하고 있어 학자들은[6] 보다 공중 중심(public-centered)의 접근법, 즉 개개인이 현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 연구할 것을 촉구해 왔다. 또한, 현존하는 공중 중심의 연구들조차 액티비스트 조직(activist organizations)이 PR 전략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이 역시 액티비스트 그룹을 하나의 조직으로 간주하는 조직 중심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공중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활동공중으로 집단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학자들은 문화적·역사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나[7], 이는 소수의 연구[8][9]를 제외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에서 촛불집회를 겪으면서 진행된 연구들 역시 대부분 정치사회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었다. 문화적 의미에 초점을 둔 소수의 연구들[10][11] 역시 문헌연구, 보도자료, 참여관찰 등을 통해 연구자 개인의 해석에 보다 중점을 둔 채 실제 참여자 주관적인 인식이나 느낌, 해석 등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촛불집회 참가자의 인식과 내면을 탐색하기 위해 질적 연구의 하나인 심층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 일어난 두 번의 대규모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집회에 공통적으로 부여하는 문화적 의미에 대해 탐색해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1) 활동공중의 관점에서 촛불집회가 지니는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고, (2) 이론적으로 활동공중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는 정부가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정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실무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치사회적 의미 중심 혹은 연구자 시각에서 바라

본 촛불집회라는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활동공중 및 촛불집회의 문화적 의미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확장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활동공중

활동공중(active public)에 대한 연구는 PR영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조직을 보이콧, 액티비스트 그룹과 같은 외부 위협(outside threats)으로부터 방어하려는 PR 실무의 본질상, 공중(publics)에 대한 이해는 일반적으로 조직 중심의 관점(organizational perspectives)으로 이루어져왔다[6]. 공중에 대한 연구에 있어 큰 축을 이루는 공중상황이론(situational theory of publics)[12]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공중상황이론은 사회심리학적 변인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공중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중요한 틀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6][13] PR 학문이 보다 성숙된 연구 분야로써 자리 잡기 위해서는 조직·실무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공중 중심의(public-centered) 연구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해왔다.

구체적으로 몇몇 PR 학자들은[14-16] 공중들의 행동은 공중상황이론에서처럼 단순히 몇 가지 사회심리학적 변인으로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공중은 특정 현상의 상징적 현실(symbolic reality)에 이르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타인 혹은 다양한 메세지와 상호작용을 하며, 이를 통해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즉, 이 학자들은 공중이 의미형성 과정에서 보이는 주관성과 역동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활동공중에 대한 공중 중심의 접근은 조직 중심의 접근과 차별점을 지니게 된다.

특히, Sommerfeldt[17]는 공중상황이론과 같은 조직 중심의 이론들은 그들이 방어하고자 하는 주 대상인 활동공중을 이해하는데 적절하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이외의 다른 대안적 이론틀(alternative framework)을 활동공중 연구에 적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Cozier와 Witmer[18]와 Sommerfeldt [17]는 활동공중을 연구하

는 틀로 구조사회론(structural social theory)을 이용하였으며, Holtzhausen[19]은 포스트모던 이론(postmodern theory)을 적용한 바 있다. 보다 최근에는, Weaver[9]는 시위와 같은 활동공중의 참여가 카니발(carnavalesque)의 한 장르로 이해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활동공중으로써의 참여가 다른 공중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대화(dialogue)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중을 이해하는데 요구되는 또 다른 대안으로 학자들은 문화적 접근방식의 중요성을 주장해왔다[7]. 문화가 공중의 활동성(public's activeness)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져 왔지만, 이는 소수 몇몇의 경우[8]를 제외하고 거의 연구된 바가 없다[7]. 태국의 HIV/AIDS 이슈를 다룬 Chay-Nemeth[8]는 질적 연구를 통해 공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역사적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녀의 연구는 기존 PR연구에서 사용되던 활동공중·잠재공중·자각적공중·비공중(active-, latent-, aware-, non-public)이 아닌, 역사적 상황에 따라 분류한 공중의 유형(예: circumscribed, co-opted, critical, circumventing)이 그 특정 상황에서 더 적절한 분류임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활동공중을 이해하는 보다 다양한 접근 방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2. 액티비즘에 대한 문화적 접근

액티비스트들은 그 활동성(activeness)의 정도가 활동공중 내에서도 가장 높은 그룹을 지칭한다[20]. 이러한 액티비즘에 대해 몇몇 학자들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문화적 표현 방식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왔다[9][21][22]. 예를 들어 Branagan[21]은 시위에 있어 유머가 하는 역할에 주목하였다. Branagan은 유머가 사람들을 지적이면서도 감정적이게 만들고, 이들이 실제로 행동하게끔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유머 액티비즘은 (1) 전체적으로 사회 역할이 역전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2) 보다 참여적인 시위(inclusivity) 환경을 창조하고, (3)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Branagan은 20년간의 호주 액티비즘 사례연구를 통해 유머 액티비즘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일상에서 겪어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에서 잠시 벗

어나 공동체 안에서의 동지애 (collective camaraderie) 를 느끼게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시위에서 들은 내용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시위 현장의 광경은 스펙터클하고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장면들은 사람들에게 보다 중요한 기억으로 남으며, 그들의 삶을 바꾸는데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유머는 기존 시위에 많이 사용되었던 행진이나 길을 막는 방식에 비해, 풍자극에서 연기를 한다든지, 음악, 시, 조형물, 불꽃놀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쉽게 액티비즘에 참여하게끔 유도한다. 이는 특히, 과격시위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21].

마지막으로 유머는 직접적으로 혹은 미디어의 주목을 통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다[21]. 풍자와 같은 예술형식은 복잡한 정보를 심플하게 커뮤니케이션하도록 함으로써, 정보 과부하 상태의 현대인에게 효과적이다. 특히, 젊은이들은 전통미디어 프로그램에 싫증을 느끼며 풍자쇼나 가짜뉴스 코미디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를 배운다. 이들에게 예술 형식을 빌린 커뮤니케이션은 보다 흥미롭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유머는 엘리트 계층에 대한 은밀한 내용을 보다 쉽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준다. 예를 들어, Branagan은 호주 환경부장관이었던 Robert Hill이 범인을 수배하는데 쓰이는 'Wanted' 포스터 주인공으로 제작되었던 예를 들었다[21].

다른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유머를 녹여내어 정치적 표현을 실행하는 카니발(political carnival)에 주목하였다[9][22]. Bruner[22]에 따르면 폴란드 시위를 주도한 것이 항상 노동조합 아니면 학생이었으나, 일반 공중들을 참여시키는데 정치카니발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과거와 현재 있어온 다양한 케이스 분석을 통해,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는데 있어, 창의적인 카니발레스크 시위(carnavalesque protest)의 활용이 효과적이었음을 주장하였다. 정치 카니발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상에서의 규율에서 잠시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정상적인 법칙들을 고의적으로 역

전시킨다. 예를 들어, 노예가 주인이 되거나 아이들이 부모 엉덩이를 때리는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대중 속에 섞임으로써 일상의 신분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숨긴 채, 보다 용감하게 정치적인 단체 행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일상에서는 불가능했었을 비판의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다. Bruner는 사람들이 1999년 세계화의 부정적인 영향에 반대하며 WTO 회의의 오프닝 날, 거북이로 변장한 퍼포먼스를 그 대표적인 예로 제시하였다[22].

Weaver[9] 역시 Bakhtin[23][24]에 의해 이론화된 카니발레스크(carnavalesque) 개념을 이용하여, '유전공학에 반대하는 뉴질랜드 어머니 모임(New Zealand group Mothers against Genetic Engineering)'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Bakhtin에 따르면, 카니발은 (1) familiar and free interaction between people, 동질감 없는 이들을 모아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성격; (2) eccentric behaviour, 일상에서 용납되지 않는 기괴한 행동의 수용; (3) carnivalistic mésalliances, 노인과 젊은이 등 분리되어 있는 것들의 재결합; (4) profanation, 신성하고 존경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불경으로 특징지어진다.

전통적으로 중세시대의 카니발은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는 불가능했던, 웃고 즐기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즉, 사회계층이나 상하관계로 뒤엉켜있는 현실의 억압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보다 즐겁고 이상적인 순간을 제공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발생하는 웃음(laughter)은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적이고 상황적인 제약을 잊고 서로간의 대화에 바탕을 둔 소통(dialogic communication)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에 바탕을 둔 분석결과, Weaver[9]는 카니발 형태의 시위(carnavalesque protest)는 정치사회적으로 권력이 약한 사람들이 정부나 기업과 같이 막강한 규제력을 지닌 권력층에 대항하고, 갈등을 만들어 내기 위해 사용된 공중 관계의 한 종류라고 주장하였다. Weaver는 카니발 형태의 시위가 유머와 같은 기분 좋은 감정을 통해 사람들을 공동체에 참여하게 하며, 더 나아가 시민들 간의 대화를 촉진시키고 언론의 이목

을 끌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

### 3. 촛불집회에 관한 문화적 의미 연구

2008년과 2016년 촛불집회를 겪으며 정치·사회·언론·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촛불집회의 민주주의적 함의[25][26], 촛불집회에서 디지털기술이 행한 역할[27][28], 촛불집회 관련 언론보도 분석[29] 등이 그 대표적인 주제이다.

촛불집회를 문화적 관점으로 탐구한 연구는 크게 촛불집회의 (1) 퍼포먼스·카니발적 성격 그리고 (2) 해방으로써의 역할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학자들[10][30][31]은 촛불집회가 퍼포먼스·카니발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더욱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론을 통해 촛불시위의 상징이나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광재현[10]은 위에서 설명한 Bakhtin의 카니발레스크 개념을 바탕으로 2016 촛불집회에서 어떠한 축제적 요소가 발견되는지 문화기술지와 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2016 촛불집회에서는 다양한 카니발레스크 특징들(예: 친밀성, 전도, 그로테스크 리얼리즘, 풍자·유화)이 발견되었다. 그는 이러한 특징들로 시민들이 쉽게 집회에 직접 참여하며, 이러한 점은 이를 이전 집회들과 차별화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와 유사하게 주현식[30]은 2016년 촛불집회가 연극적 요소인 무대공간(예: 경찰차 바리케이드를 중심으로 대립한 시민과 경찰 간의 긴장감), 의상(예: 하야를 주장하는 마스크와 옷), 오브제(예: 사회적 상징성을 담은 촛불)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퍼포먼스를 선보였기에 성공적일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이러한 연극적 요소들은 카니발을 연상시키는 인형극, 행동, 언어, 행진 등을 통해 비일상적인 공간을 창출했다고 부연했다. 퍼포먼스 이론을 2008년 촛불집회에 적용한 한우리·허철[31] 역시 촛불을 드는 의례(ritual)와 모성애를 상징하는 유모차부대 등의 퍼포먼스로 촛불집회가 특징지어진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다른 학자들은 촛불집회의 ‘해방’으로써의 기능에 주목하였다. 김기정[32]는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놀이’라는 점에서 2008년 촛불집회가 2002년 월드컵

컵 거리응원과 유사성을 띤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Canetti[33]의 설명에 따라 사람들은 다수의 타인들과 밀집된 상태, 즉, 군중을 형성한 상태에서 일상의 괴리를 잊고 타인과의 평등과 자유를 느낀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점에서 김기정은 2008년 촛불문화가 타인과의 괴리에서 개인들을 해방시켜주는 놀이문화라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하게 김용기·임동희[11]는 문헌고찰을 통해 촛불집회가 다양한 기능 가운데 사회적 불만을 해소하는 기능 역시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진중권[34]은 이와 관련하여 “촛불집회에 사람들이 그처럼 많이 나온 이유는 집회를 즐거운 놀이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3개월간 해방구를 체험했다”라고 언급하였다.

### III. 연구문제 및 목적

2008년과 2016년 일어난 대규모 촛불집회는 폭력 시위가 아닌 문화행사였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으며, 민주주의를 몸소 체험하는 공간으로 평가되고 있다[35]. 하지만 ‘문화’의 모습을 띄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촛불시위에 대해 공중들이 경험하고 지각하는 ‘문화적 의미’는 무엇인지 아직 충분히 밝혀진 바가 없다. 특히, 촛불집회에 대해 문화적 관점을 취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촛불시위 참가자의 생각을 탐색하기보다 촛불집회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특징들(예: 연극적 요소)을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예: 문헌연구, 보도 분석, 참여관찰)에 의존하여 분석하는데 그쳤다[10][11]. 연구자들이 활동공중의 내면까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연구는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 연구문제: 활동공중은 2008년과 2016년 촛불집회에 어떠한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는가?

위 연구문제의 탐구를 통해 본 연구는 활동공중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기존에 활동공중에 이해하는데 자주 이용되었던 사회심리학적 변인에

기반한 접근 방식과 달리, 본 연구는 문화·역사적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그 대안적 틀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또한 한국이라는 특수한 케이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상황에서의 활동공중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특히, PR 이론의 공고화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활동공중 외에 다양한 공중들을 이해하는데 문화적 접근이 지니는 이론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Chay-Nemeth[8]가 주장했듯이, 공중에 대한 이해는 그 공중이 존재하는 컨텍스트 안에서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른 공중 분야에 대한 이해 역시 도울 것이다.

한편, 실무적 차원에서 본 연구는 정부 실무자에게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기존에 많이 연구되어온 공중상황이론에서는 활동공중이 문제 해결(problem solving)을 위해 행동한다고 주장한다[12]. 하지만 본 연구는 문제 해결 외에도 활동공중이 촛불집회를 다양하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고 행동을 취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촛불집회를 둘러싼 활동공중의 다양한 의미 형성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해는 활동공중이 반정부적인 행동에 이르기 전,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 문제 상황이 어떻게 해석·이해되고 있는지 설명해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보다 효과적인 정부-공중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액티비스트 그룹에게 공중을 동원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활동공중이 그들의 참여에 부여하는 다양한 의미를 탐색한다. 이러한 의미에 대한 이해와 그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의 적용은 액티비스트 그룹이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전략 방안을 제공할 것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큰 축으로 자리 잡은 촛불집회라는 현상에 대해 어떠한 문화적 의미들이 형성·공유·발전되어 가고 있는지 답해줄 것이다.

#### IV.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통한 질

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론은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특정 상황에서의 과정이나 개인적인 경험을 탐구하고자 할 때 적절한 방식으로, 연구 현상을 전체적(holistic)으로 바라보게 하며, 풍부하고 깊이 있는 결과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36]. 구체적으로 이는 연구자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how)’ 혹은 ‘왜(why)’와 관련된 문제에 답하고자 할 때 강력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37]. 본 연구의 문제가 공중들이 촛불집회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 내면, 즉 주관적인 인식과 해석을 탐색하는 것인 만큼, 질적 연구, 그 중에서도 심층 인터뷰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은 한국의 대표적인 두 번의 촛불집회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에서는 22명의 촛불집회 참가자와의 심층인터뷰가 서울 광장에서 참가자에 따라 30-65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에서는 25명의 촛불집회 참가자와의 심층인터뷰가 광화문 광장에서 20-6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개인 신상을 밝히기 거부한 이들의 연령을 제외했을 때, 2008년 인터뷰 참가자는 11명의 남자와 11명의 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연령은 20-59였다. 2016년 인터뷰 참가자는 13명의 남자와 12명의 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은 23-67세였다.

촛불집회 현장의 분위기와 참가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잘 포착하기 위해 소수의 추가 인터뷰를 제외한 모든 인터뷰는 집회 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는 필드노트와 메모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접근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뷰를 거절했으나, 한 동안 집회 현장에 머무르고, 참가자들과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래포트(rapport)를 쌓은 후, 참가자들은 인터뷰에 호의적으로 참가하였다. 녹음을 거절한 인터뷰 참가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인터뷰는 모두 녹음된 후 기록되었고, 분석되었다.

데이터 분석은 근거이론 접근 방식(grounded theory approach)[38]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형성되는 패턴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36].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구체적인 주제(theme)가 떠오를 때까지 기록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읽고, 각각의 떠오른 주제는

유사한 타주제들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재구성되었다.

## V. 연구 결과

인터뷰 참가자들은 촛불집회의 문화적 의미를 (1) 축제, (2) 해학, 그리고 (3) 개인 표현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1. 축제(Festivity)

참가자들은 촛불집회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기는 축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들은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보여졌던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항의와 달리, 촛불집회가 축제 분위기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장벽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한 2008년 집회 참여자는 “여기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하고 같이 왔어요 큰 광장에서 페스티벌 하는 것처럼 붉은 악마 헤어밴드를 하고 나오기도 했고 아이들도 부모들 손잡고 나와 앉아서 햄버거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대학생들도 끼리끼리 모여서 MT은 것처럼 소주 마시면서 학교 응원가를 부르고요 몇몇 참가자들은 시위가 이렇게 평화로운 분위기일거라고 나오기 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참가자들은 이러한 축제 형태의 집회가 가능한 것은 우리나라에 축제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 무언가를 함께 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 문화의 부재 속에서, 사회적 이슈가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 집단행동이 축제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한 참가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파리에 강을 가로지르는 유람선을 탔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이 그 강변에 모여서 다들 여유 있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인들은 너무 바쁘고 하루하루 정신없이 지치고...활력을 얻고 재충전할 기회 같은 게 전혀 없잖아요 술 마시는 것 밖에

문화적으로 무언가 한다는 느낌, 어찌면 축제? 그런 거 같아요 축제 같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유럽에는 토마토 축제나 모 그런 축제들이 많다고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즐기는, 다른 사람과, 특히, 모르는 사람들과 무언가 함께 할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어찌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싶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참가자 역시 이와 유사하게 설명하였다:

“사람들은 아마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큰 공간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싶네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 건전하고 자유롭게 생각과 마음을 털어내고 나눌 공공의 장소가 없었잖아요...그리고 그럴 기회가 될 수 있는 축제 같은 것도 없고요 그런 무언가의 결핍 그러한 결핍이 이렇게 촛불집회 형태로 발전된 거 같습니다

이 외에도 사람들은 일상에 쫓겨 무관심했던 사회적 인 문제에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축제라고 인식하는 것으로도 보였다. 한 참가자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여기 오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네요 나도 대학 다닐 때는 사회나 정치 문제에 관심도 많고 술 한 잔씩 하면서 그런 이슈에 대해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꼭 그 때로 돌아간 거 같아요 다시 젊어진 것 같다고 해야하나...[웃음]. 특히, 대학교 1-2학년 때 이후로는 초를 커본 적도 없거니와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이란 걸 해본 적이 없었니까요 졸업하고 취직하고 직장 다니면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이처럼 촛불집회는 항의의 목적 뿐 아니라 축제의 장으로 사람들에게 타인과 소통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 열정적으로 무언가에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의 의미로 인식된다고 보인다.

### 2. 해학(Humor)

참가자들은 촛불집회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해석적인 표현 방식 역시 촛불집회의 문화적인 의미를 보여준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격양되고 물리적이며 폭력적인 집회와 달리, 유머러스하며 한국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 표현 방식은 “예전에 학교에서 배운 적 있는 것 같은” 해석을 보여준다고 참가자들은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집회에 나오는 것이 두려워 2008년 광우병 집회에는 나가지 못했으나, 2016년 집회에는 용기를 내어 참가했다는 한 30대 여성은 촛불집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들이 어쨌든, 예전하고 달리 비폭력시위를 하는 거고 되게 회화한다고 하나, 예술로 승화했다고 하나? 우리의 울분을? 사람들이 왜 가면도 쓰고 나오고 그러니깐 모, 박근혜 대통령 모습으로 가면 만들어 쓰고 나오고, 최순실하고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 넣은 것 같은 모습을 얼굴에 빗장을 그려서 만들어가지고 가면 만들어 쓰고 나오고 그러셨는데. [연구자: 감옥에 가둔 것처럼요?] 예, 그 감옥 빗살, 쇠창살을 얼굴에 그려다가 가면 만들어 나오시고 그런 것들이 참, 재미나게... 우리가 영화나 연극에서 한이나 울분을 예술로 승화했다 하는데 그것처럼 정말 국민의 울분을 회화하면서 승화한 듯한 느낌이 인상적인 거 같아요

다른 참가자 역시 이와 유사하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인상적이었던 게... 촛불... 김진태 의원이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고 그 얘기하자마자 그 다음 시위에 사람들이 LED로 된 촛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햇불을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들은 촛불이 아니라고... 바람 불어도 꺼지지 않죠 LED 등을 가지고 나오면 아예 그렇게 국민들이 그렇게 재치 있게 대응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처럼 경직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행되는 시위가 아닌, 해석적이고 풍자적으로 울분과 분노를 풀어내는 방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촛불집회가 정치적 목적이

아닌 문화적 목적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 3. 개인 표현의 공간(Self-expression)

마지막으로 촛불집회는 개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참가자들은 촛불집회에서, 과거 그들이 보아왔던 기존의 집회와는 달리,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자신의 생각을 개인의 장기를 통해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종종 그들은 이러한 분위기를 설명할 때 유럽에서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바디 아트를 하는 ‘광장’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그들은 그 광장에서 사람들이 항의하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대신 문화적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며 머무르고 있다고 묘사하였다. 다른 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촛불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항의를 하는 것이 아닌, 개인들이 자기만의 좋아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잘 할 수 있는 방식, 예를 들어,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노래를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이고 즐거운 분위기는 “광장에 모여서 치열하게 싸우려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우리 국민의 의견을 표현하려고 온 거라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인식되었다. 한 참가자가 말하기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기타를 연주하고, 자기 보세요 그림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그림을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해요 그냥 그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같이 노래하고 박수치고 그래요 이런 게 우리 국민들 의견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많은 참가자들은 촛불집회를 ‘자기표현’을 위한 문화공간이라고 일컬었다. 몇몇 참가자들은 그러한 문화공간이 단순히 재미를 위해 모여드는 것과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하였다. 한 참가자는 이 촛불집회가 항의라기보다 문화공간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과 그 느낌이 즐겁고 긍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연사들이 보통 무대에서 얘기할 때, 옛날에는 [과거 시위] 보통 목소리 톤이 아주 강하고 무거웠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가볍게 이야기하잖아요. 저기 저렇게 듣는 사람들도 반응을 보이고 재미있어하고 웃고 농담하고 노래하고... 유명한 사람들도 이렇게 평화로우니까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이성적이고 참을성 있고 여유롭게 참가하고 있어요

특히, 몇몇 참가자들은 이러한 촛불집회가 축제 분위기에서 해학적으로 개인 위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주도하는 세력이 없어서라고 강조하였다. 한 참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게 폭력시위를 하는 게 말하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솔직히 좀 시민들의 시위가 아니라 좀... 어떤, 데모를 주도하는 세력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제가 전에 있던 직장에서도 그랬고 그게 꼭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닌 데도, 무조건 그냥 습관적, 일 년에 2번은 습관적으로 주동자들이 데모를 하더라고요이것처럼 예전에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죠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건 알 수 없지만 백남기 농민 사건 이런 것도 보면, 그게 누가 옳았는지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겠으나, 의경들도 다 국민들의 자식들이고 형제들인데, 거기다 대고 헛불로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런 세력들보다 국민들 마음으로 이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정말 표출을 위해서 일어난거잖아요 정치 목적이 아니라...”

##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총 47명의 촛불집회 참가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촛불집회가 지니는 문화적 의미가 무엇인지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데이터 분석 결과 참가자들은 촛불집회를 타인과 공동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자, 해학적인 비판과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학자들[17-19]이 비판한 대로, 활동공중을 이해하는 데 있어 조직 중심의 접근방식이 지니는 한계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활동공중의 행동에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식 외에도[12], 주관적이고 역동적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그 의미창조 과정에 참여하는 의미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14-16].

참가자들은 촛불집회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의미를 형성·공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촛불집회를 하나의 축제라고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에 관심은 있어도 바쁘게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정치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연구는 촛불집회가 사람들에게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의 이슈에 대해 대화하고 관계를 형성할 기회 혹은 여유로 인식되는 것을 밝혔다. 이는 기존 연구들[9][21][22]이 주장한 대로 축제 액티비즘이 액티비즘의 한 종류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축제 형태의 액티비즘은 보다 쉽게 미디어의 이목을 끌고, 더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 나아가 이러한 참가자들의 인식은 촛불집회를 통해 공동체적 놀이문화를 향유하고자 한다는 기존 연구[11][32][34] 역시 지지한다. 밀집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대중들은 즐거움 혹은 놀이로 인식했으며, 이를 통해 일종의 해방감을 맛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시민들이 해학이라는 유머 소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를 규제하는 권력집단에 저항한다는 기존 연구[21][22]를 뒷받침한다. Branagan[21]의 예시에서 보여줬던 호주 환경부 장관의 ‘Wanted’ 포스터와 마찬가지로, 촛불시위에서 보여진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있는 모습 등은 그들에 대한 구속 요구를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것으로 보인다. Weaver[9]의 주장처럼, 이러한 유머러스한 표현은 직접적으로는 어려웠던 권력층에 대한 비판을 풀어내는 방법이기도 하고, 집회에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보다 쉽게 참여시키기 위한 도구이기도 한 것이다. 많은 인터뷰 참가자들은 촛불집회가 기존의 폭력적이고 경직된 시위였으면 “무서워서” 참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할 바 있다. 기존 연구[10][30][31]에서는 문헌연구나 연구자 관찰 및 해석을 통해 촛불집회가 퍼포먼스 이론이나 카니발레스크 개념에서 설명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이 촛불집회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특히, 집회 참가자의 입장에서 유머 소구라는 것이 그 주 원동력이었음이 밝혀졌고, 이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한다.

마지막으로 촛불집회는 개인 표현의 장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Branagan[21]이 주장한 바와 같이 촛불집회는 선동하는 집단 없이 개인이 자신의 뜻을 다양하게 표현함으로써 유머와 같이 기분 좋은 감정을 일으켜 그 참여도와 포함 범위(inclusivity)를 넓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Weaver[9]가 주장한 바와 같이 효과적으로 시민들 간의 대화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기제로 보인다.

위와 같은 촛불집회의 문화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기존 학자들이 주장한 대로 공중에 대한 이해는 그 공중이 속한 컨텍스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8]. 촛불집회는 폭력적인 민주화 과정을 겪은 한국의 역사, 그리고 축제 혹은 공동체 활동의 부재라는 문화적 배경 안에서 출현하게 된 특수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직간접적인 경험의 축적이 문화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30대 참가자들은 70-80년대의 민주화 과정을 겪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식 속에는 폭력 시위에 대한 기억이 간접적으로 남아 있었다. 반면, 다수의 참가자들은 그들이 직접 참가했던 2002년 월드컵에서의 단체 거리 응원에서 느꼈던 희열을 떠올렸다. 학문 영역의 발전을 위해 이론적 틀을 성립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그러한 이론적 틀에 문화적 특수성 역시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활동공중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향상시킨다. 기존 연구에서는 활동공중이 특정 문제를 집단으로 해결하기 위해 형성된다고 가정해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가치 추구 역시 활동공중에게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물론 본 연구 결과가 기존의 문제해결 중심의 활동공중에 대한 연구와 대치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중점을 두어

온 문제해결이라는 ‘목적’ 중심의 접근방식 외에, 특정 공간에서 타인과 공동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를 형성해가는 ‘과정’ 중심의 접근방식 역시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화적 의미는 활동공중 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공중(예: 잠재공중·자각적공중·비공중)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자각적 공중(aware public)은 촛불집회의 정치적인 의미를 자각하면서도 이러한 촛불집회의 문화적인 성격 때문에 목적이 퇴색되었다고 느끼며 참가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잠재공중(latent public)은 촛불집회의 정치적 사건이 자신들과 관련이 있음에도 촛불집회의 가벼운 분위기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 내용의 범위 밖이지만, 향후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제들이다.

본 연구는 촛불집회의 문화적 의미에 초점을 두고 이를 통해 활동공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본 연구는 촛불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을 활동공중이라 가정하였다. 비록 촛불시위에 직접 참가한 사람들인 만큼 그들이 어느 정도의 활동성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안에도 활동성에 따라 다양한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들의 촛불집회에 대한 문화적 의미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활동공중의 다양한 의미형성 과정과 내용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위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문화에 따라 공중은 다르게 형성되며,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국가에서도 이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밝혀지는지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 인터뷰에 참가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 문헌

[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4858&cid=40942&categoryId=31615>, 2019.01.03.  
 [2] 송해룡, 김원제, 조항민, 김찬원, 박성철, 한국 실

- 패 사례에서 배우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3] W. Y. Chang and H. W. Park, "The Network Structure of the Korean Blogosphere,"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17, pp.216-230, 2012.
- [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312103005&code=960205#csidx982cd3828c29d69be83417f1414f36d](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312103005&code=960205#csidx982cd3828c29d69be83417f1414f36d), 2019.01.03.
- [5] J. E. Grunig and T. Hunt, *Managing Public Relations*, Harcourt Brace Jovanovich College Publishers, 1984.
- [6] D. M. Dozier and M. Lauzen, "Liberating the Intellectual Domain from the Practice: Public Relations, Activism, and the Role of the Scholar,"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Vol.12, No.1, pp.3-22, 2000.
- [7] B. L. Sha, "Cultural Identity in the Segmentation of Publics: An Emerging Theory of Intercultural Public Relation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Vol.18, pp.45-65, 2006.
- [8] C. Chay-Nemeth, "Revisiting Publics: A Critical Archaeology of Publics in the Thai HIV/AIDS issue,"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Vol.13, No.2, pp.127-161, 2001.
- [9] C. K. Weaver, "Carnavalesque Activism as a Public Relations Genre: A Case Study of the New Zealand Group Mothers against Genetic Engineering," *Public Relations Review*, Vol.36, pp.35-41, 2010.
- [10]곽재현, "미하일 바흐친의 카니발레스크 고찰 -2016 촛불집회 현상," *관광학연구*, 제41권, 제7호, pp.45-60, 2017.
- [11]김용기, 임동희,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의 교육적 의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6호, pp.311-318, 2017.
- [12] J. E. Grunig, "A Situational Theory of Publics: Conceptual History, Recent Challenges and New Research," In D. Moss, T. MacManus and D. Vercic (Eds.), *Public Relations Research: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pp.3-46), International Thompson Business Press, 1997.
- [13] M. Karlberg, "Remembering the Public in Public Relations Research: From Theoretical to Operational Symmetry,"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Vol.8, pp.263-278, 1996.
- [14] C. H. Botan and F. Soto, "A Semiotic Approach to the Internal Functioning of Publics: Implications for Strategic Communication and Public Relations," *Public Relations Review*, Vol.24, pp.21-44, 1998.
- [15] R. L. Heath and M. Palenchar, "Community Relations and Risk Communication: A Longitudinal Study of the Impact of Emergency Response Messages,"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Vol.12, pp.131-161, 2000.
- [16] G. M. Vasquez and M. Taylor, "Research Perspectives on 'The Public'," In R. L. Heath (Ed.), *Handbook of Public Relations*, pp.139-154, Sage, 2001.
- [17] E. J. Sommerfeldt, "The Dynamics of Activist Power Relationships: A Structurationist Exploration of the Segmentation of Activist Publics," *International Journal of Strategic Communication*, Vol.6, pp.269-286, 2011.
- [18] Z. Cozier and D. F. Witmer, "The Development of a Structuration Analysis of New Publics in an Electronic Environment," In R. L. Heath (Ed.), *Handbook of Public Relations*, pp.615-623, Sage, 2001.
- [19] D. R. Holtzhausen, "Activism," In Elizabeth L. Toth (ed.), *The Handbook of Excellence in Public Relations and Communication Management: Challenges for the Next Generation*, pp.357-379, Lawrence Erlbaum, 2007.
- [20] J. N. Kim, "Public Segmentation using

- Situational Theory of Problem Solving: Illustrating Summation Method and Testing Segmented Public Profiles,” *Prism*, Vol.8, No.2, 2011.
- [21] M. Branagan, “The Last Laugh: Humour in Community Activism,” *Community Development Journal*, Vol.42, No.4, pp.470-481, 2007.
- [22] M. L. Bruner, “Carnavalesque Protest and the Humourless State,” *Text and Performance Quarterly*, Vol.25, No.2, pp.136-155, 2005.
- [23] M. Bakhtin, *Rabelais and His World* (2nd ed., H. Iswolsky, Trans.), MIT Press, 1984.
- [24] M. Bakhtin, *Problems of Dostoevsky’s Poetics*, Vol.8,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3.
- [25] 도묘연, “결사체 활동, 시민성 그리고 촛불집회 참여의 경로구조,” *현대정치연구*, 제10권, 제2호, pp.5-41, 2017.
- [26] 홍성기,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의 민주적 함의,” *한국언론정보학보*, 제89권, pp.149-178, 2018.
- [27] 고인석, “인터넷 정치참여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모색,” *홍익법학*, 제11권, 제3호, pp.41-69, 2010.
- [28] 이정기, 정대철, “광우병 촛불집회에 나타난 ‘미디어 2.0’ 현상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제16권, pp.193-244, 2010.
- [29] 김병진, 이상은, 양종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보도 편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1호, pp.554-566, 2017.
- [30] 주현식, “촛불집회, 블랙텐트, 그리고 사회적 퍼포먼스,” *한국연구학*, 제66호, pp.183-221, 2018.
- [31] 한우리, 허철, “보여주기의 문화정치학,” *평화연구*, 제18권, 제2호, pp.41-83, 2010.
- [32] 김기정, “커뮤니케이션의 진화와 새로운 놀이 공동체의 출현,” *예술과 미디어*, 제12권, 제4호, pp.171-191, 2013.
- [33] E. Canetti, *Crowds and Power*, Vol.190, Macmillan, 1984.
- [34]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6319#09T0>, 2019.01.03.
- [3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7/0200000000AKR20161127043200022.HTML?input=1195m>, 2019.01.03.
- [36] M. B. Miles and A. M. Huberman, *Qualitative Data Analysis* (2nd ed.), Sage, 1994.
- [37] R. K. Yin,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2nd ed.), Sage, 1994.
- [38] B. Glaser and A. Strauss,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de Gruyter, 1967.

저 자 소 개

김 자 립(Jarim Kim)

정회원



- 2003년 2월 :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학사)
- 2005년 8월 : Purdue University, Department of Communication (M.A.)
- 2014년 8월 : University of Maryland, Department of Communication (Ph.D.)
- 2014년 8월 ~ 2014년 12월 : University of Missouri, St. Louis, Department of Communication, Assistant Professor
- 2015년 3월 ~ 현재 : 국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캠페인 전략, 메시지 디자인, 루머, 활동공중, 건강·위험 커뮤니케이션